

국토 정중앙 지점 확인에 관한 연구

김창환

강원대 교수

1. 서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문화가 누적되어 있는 곳이며, 우리 조상들이 살아 온 삶의 터전인 국토 공간에 관해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상의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도 국토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우리 국토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한 국가가 지구상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위치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리학적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특정의 지리적 목적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목적물과의 관계를 방위각, 거리, 기능 등으로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중부 지방을 우리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중부 지방이 우리 나라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지역단위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국토의 정중앙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에 접하게 되었다. 국립지리원이나 각종 지도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위치와 관련된 것은 극동, 극서, 극남, 극북 등의 4극뿐이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부도 및 지리부도를 보아도 우리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록편에 우리 나라의 4극을 표현할 뿐이지 우리 나라의 중앙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 지리학계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던 국토 정중앙점에 관해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국토 정중앙점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국토지리 가치의 재발견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동시에 통일 시대를 겨냥하여 남북한을 합친 국토 정중앙점을 확인하여 국토 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국토 정중앙에 관한 논의

현재 우리 나라에서 국토의 중앙, 한반도의 중심임을 내세우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 충주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과 인제군 등이다. 이들 지역이 저마다 '한반도 중앙'을 홍보하고 있는 것은 '중앙'과 '중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지역의 지리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마을의 관광지 조성과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에서의 지리적 위치 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성공한 예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충북 충주시는 삼국시대 당시 3국의 접경 지역이었으며, 중원고구려비가 세워져 있는 역사성 등을 들어 '한반도의 중앙'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앙경선이 지나가는 한반도 남단의 중앙에 위치한 여수시도 '국토남단의 정중앙'을 강조하고 있다.

철원군은 "태백산맥의 금강산에서부터 경기도 쪽으로 뻗어내린 광주산맥을 등받이처럼 동쪽에 대고,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추가령 열곡을 서쪽을 바라보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라고 지역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또한 군 홈페이지에서 인제군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강원도의 중동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영서북부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인제군의 국도변 한 휴게소 이름도 "정중앙 휴게소"로 명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경기도의 고양시, 의정부시도 한반도의 정중앙지대임을 홍보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기도에 걸쳐있는

화악산도 '국토의 정중앙'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등산전문잡지 등에 의해 '정중앙지점'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반도의 정중앙지역'이라고 주장되거나 자주 표기되고 있는 곳이 바로 화악산이다. 이 주장은 화악산이 삭주-울산, 중강진-여수, 백두산-한라산, 그리고 북위 38도선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고, 단군이 묻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정감록에도 '화악노정기'라 하여 그 위치를 상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화악산을 포함해 다른 지역들이 내세우고 있는 '국토 중앙'의 근거는 풍수지리 또는 설화에 의한 것이거나, 기준이 모호하고, 정확한 좌표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3. 국토 정중앙점의 기준에 관한 논의

국토 정중앙 지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국토의 4극 지점을 양분하는 방법과 한반도의 X자 교차 지점으로 하는 방법, 무게 중심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 해안선의 복잡성을 고려한 곡률도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구·수도의 위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X자 교차 지점 방법은 한반도의 형태가 정사각형이라면 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국토의 모양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무게 중심의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 한 결과는 국토의 정중앙이라기보다는 중력에 따른 무게중심에 해당된다. 또한 곡률도에 의한 방법은 그 기준 설정이 애매할 뿐 아니라 수많은 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립지리원에서 주장한 한 나라의 중심은 인구, 산업, 경제, 수도의 위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은 관계적 위치에서 나타난 중심 개념이지 지리적 위치에 의한 중앙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화될 수 있는 국토의 정중앙점은 극동, 극서, 극남, 극북의 정중앙선을 교차(동쪽 끝과 서쪽 끝의 정중앙, 남쪽 끝과 북쪽 끝의 정중앙)하는 지점을 지리적 국토 정중앙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토의 4극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국토의 정중앙점을 설정한 예는 일본, 미국, 몽골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19년 초등학교 교사수학연수회 강사가 효고(兵庫)현 니시와키(西脇)시가 국토의 정중앙이라고 지적하여, 1923년 일본의 중앙경선인 동경 135°와 중앙위선인 북위 35°의 교차점을 찾는 측량을 실시하고, 1924년에 경위도 교차점 표지석을 매설하였다. 그리고 1978년에는 일본 국토지리원에 교차점의 재계측을 의뢰하고, 1994년 GPS측량을 통하여 중앙점을 재확인하여 "일본 배꼽 기념비"를 설치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1898년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48개주의 지리적 중심이 되는 도시로 캔사스주의 레바논시로 결정하였다. 그 측정 방식은 4극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1941년 시정부와 사업가, 시민들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여 미국 국토 정중앙 표지석을 설치하고, 최근에는 표지석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였다. 몽골의 경우도 4극을 기준으로 지리적 중앙점을 설정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몽골을 소개하는 지도에는 "Geographical Middle Point"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4. 국토 정중앙점 확인

국토의 정중앙점을 4극 지점을 기준으로 정중앙선을 교차하는 지점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의 정확한 4극 지점의 경위도 좌표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각종 자료를 통해 국토의 4극 지점을 확인해 본 결과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사회과부도와 지리부도에서 표현한 4극 지점의 경위도 좌표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극 동	극 서	극 남	극 북
국립지리원	울릉군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면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은성군 유포면 북단
	131° 51' 20" E	124° 11' 45" E	33° 06' 40" N	43° 00' 35" N
한국지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은성군 유포면 북단
	131° 52' 42" E	124° 11' 00" E	33° 06' 44" N	43° 00' 39" N
한국지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은성군 유포진 북단
	131° 52' 42" E	124° 11' 00" E	33° 06' 44" N	43° 00' 39" N
A출판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동주동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은성군 남양면 풍서동 북단
	131°52' 42" E	124°11' 00" E	33°06' 40" N	43°00' 39" N
B출판사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은성군 남양면 북단
	131°52' E	124°11' E	33°06' N	43°00' N
C출판사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동단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 서단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단	함경북도 은성군 유포면 북단
	131°52' E	124°11' E	33°06' N	43°02' N

<표 1>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4극 지점에 대한 비교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우리 나라에서 좌표 측량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국립지리원에 문의하여 우리 나라의 4극 지점 좌표를 설정하였다. 그 4극 지점은 극동 131°51' 20" E, 극서 124°11' 45" E, 극남 33°06' 40" N, 극북 43°00' 35" N이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정중앙점을 측정한 결과 정중앙점의 좌표는 128°02' 02.5" E, 38°03' 37.5" N 이다. 이 지역은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부근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강원도민일보가 국립지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얻어낸 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다.

한편, 지리부도나 사회과부도에는 섬을 포함한 4극 지점과 섬을 제외한 지점의 4극 지점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중앙 좌표 지점은 서로 다르게 된다. 그래서 필자는 섬을 제외한 내륙을 기준으로도 정중앙점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127°28' 55" E, 38°39' 00" N로 북강원도 회양군 현리 부근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영토의 개념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섬을 포함한 정중앙좌표가 보다 합당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설정된 정중앙 좌표의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측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보조삼각점 2점 설정(양구군 남면 두무리, 황강리, 청리소재 GPS기준점 활용)→GPS를 이용하여 파악
- 2단계 : 보조삼각점 2점을 통해 국토정중앙 측량→표지석가매설→정확도검증위해 삼각점 3곳과 표지석 지점에 GPS수신기 장착→2시간이상 인공위성으로부터 데이터 수신받아 좌표확인→국토정중앙 최종확인(오차범위±10mm)

5. 맺음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국토 중앙이라는 개념을 지리적

위치인 경위도 좌표를 이용하여, 4극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써 국토의 중앙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 지리적 가치의 재발견이란 측면과 통일 시대를 겨냥하여 남북을 통합한 국토 정중앙점을 찾아 국토 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 정중앙점이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도촌리 부근으로 확인된 것은 그동안 팽배해 있던 강원도민의 낙후 내지 변방의식을 떨쳐내기 위한 표상이 될 수도 있으며,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의 변방, 저개발 지역에서 대북교류의 전진기지, 통일시대의 길목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가치자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양구군을 국토의 정중앙으로 이미지 메이킹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할 남북화합의 상징으로, 나아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참고문헌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0, 한국지지(총론 편).
- 권혁재, 1997, 한국지리, 법문사.
- 정장호, 1986, 한국지리, 우성문화사.